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들

기획시리즈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6

박 달

일제와 맞대결한 무장투쟁가

우리는 침묵했던 이름

조국광복회의 산하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책임자로서 보천보 국내진공작전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일제 주구의 밀고로 체포되어 일제의 잔학한 고문과 악형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긍지와 조국의 독립,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 그리하여 해방되던 날, 들것에 실려 형무소를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 비록 분단된 조국의 반쪽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지만 결코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박달이다.

박달은 1910년 12월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 백원동에서 일제 지배 정책에 의해 몰락해 가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길주와 인접한 명천군의 화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생활난으로 상급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하였다. 한때 간도로 이주해 소작농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곳의 생활 또한 국내와 다름이 없는지라 이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는 몰락해가는 당시의 조선 농촌의 현실을 바로보면서 그렇게 만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전조선에서 일제에 반대하여 벌어지는 소작쟁의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보면서 조선사람이 일제의 민족적 압박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전 민족의 단결된 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소 막연하던 그의 이러한 생각은 명천군의 사회주의 성향의 소년운동단체인 명성소년회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더욱 확고해졌다.

계급에 대한 각성

1931년 봄 박달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소년회 활동에 따른 일제의 경제때문에 화전지대인 갑산군 운흥면 속신리 제4구로 이주했다. 그는 일제를 등에 업고 이중으로 화전민들을 억압하던 촌장을 비롯한 주구들의 배척운동뿐만 아니라 일제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을 이용한 야학과 독서회 활동을 통해 화전민들에게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심어나갔다. 이즈음 그는 개인의 성실한 활동만으로는 일제에 항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즉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조직이 없으면 일제와 싸울 수 없으며 어떤 행동도 빛날 수 없으며 가치있는 행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은연중 조직이 그리웠으며 조직에 망라되고 싶었고 조직의 지도밑에서 행동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였다.

1930년대 초반 갑산지방에서의 두차례에 걸친 비합법적 농민운동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박달은 운흥면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야학활동을 벌이고 있던 박금철, 이재순과 제휴하여 새로운 방침에 입각하여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새로운 방침이란 대중적인 조직활동이나 집회 대신에 프로컬운동으로 청소년층을 의식화함으로써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박달 등은 구역분담제와 비공개 비합법 전술에 기초해 도처에 혁명의 씨앗, 곧 조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야학이 없는 곳에는 야학을 조직하도록 하며 이미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그 선생들을 장악하여 우선 그들에게 사회주의 교양을 주고 그 선생들을 통해 야학생 중에서 건실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비밀독서조를 조직하게 하여 사회주의 서적을 읽도록 하며 기회있는대로 나가서 지도하였다.

박달 등은 야학 및 독서회를 조직하여 대중에 대한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간지대에 고립되어 활동하는 자신들의 운동을 조선혁명의 총체적 전망아래 지도해줄 수 있는 세력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2년 무렵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항일유격대의 소식은 이들의 연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달의 회상에 따르면 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당면목적은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며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당시 자신들은 이 단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할 과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어떻게 재시할까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박달은 자신들의 지도선으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을 택했다. 그리하여 박달은 1934년 봄 이재순을 장백현으로 파견해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한편 무장투쟁과 연계될 때까지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에서 각자의 책임아래 야학 및 독서회를 지도했다.

갑산공작위원회 결성

그러나 프로컬운동을 통해 기층대중의 의식이 성장하고 청소년들의 투쟁열기가 높아져서 야학과 독서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1935년부터 박달은 운동방침을 바꿀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곧 독서조들 사이의 횡적 연계가 금지된 상황에서 독서조만으로는 대중투쟁의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종래의 분산적 방법을 지양하고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조직원칙에 대해서는 밑으로부터 올려 조직하는 상향조직을 지양하고 윗조직을 먼저 하고 내려 조직하는 하향조직, 곧 조직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상부조직을 내놓고 하부조직은 종적 조직으로만 내려가되 말단조직은 역시 현재의 장악된 독서조로 하고 말단조직간의 횡적 연계는 철저히 끊지 하고 상호 비밀을 엄수하게 하며 하부지도는 오직 종적으로만 하게 하는 그런 조직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35년 3월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의 프로컬운동 지도자인 박달, 박금철, 이용술, 김성연, 심창식이 화합하여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전제로한 갑산공작위원회를 결성했다. 갑산공작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총책임 겸 정치부책임을 맡게 된 박달은 구역 분담제의 원칙에 따라 심창식과 함께 보천면의 신흥리 운흥동, 보흥리, 여수리, 운흥면의 대하리 등을 담당해 군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야학과 독서조를 지도하는 한편 선전물을 이용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화전민'이라는 기관지를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반제국주의운동을 지도할 기초인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직된 후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의 운동은 이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혜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북쪽 일대에는 부락마다 거의 독서조가 박히지가 않은 데가 없고 야학방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박달은 군내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아가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그 결과 1936년 11월 박달은,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장백현으로 건너갔던 이재순의 소개로 반일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 장백현 공작책임 권영벽을 갑산에서 만나 그로부터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및 무장투쟁의 활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같은 해 12월 장백현에서 박달은 갑산공작위원회의 대표자격으로 이재순과 권영벽의 안내를 받아 김일성과 만났다. 이날의 회견에 조국광복회의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박달 등은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과 규약을 조직의 강령과 활동준칙으로 채택하고 국내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확대 강화할 것, 기존의 조직들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으로 개편할 것, 광범위한 군중속에 침투할 것, 하부조직의 핵심을 견실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할 것, 항일무장투쟁을 지원할 것, 진흥회나 자위단 등의 어용단체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것 등의 운동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박달등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함으로써 국내에도 무장투쟁의 지도아래 조선혁명을 위해 통일전선운동과 당건설운동을 전개할 반일민족통일전선체제의 결성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장 신
〈한국역사연구회회원·연대 석사과정 수료〉

◇보천보사건은 침체기의 민족해방운동에 큰 희망을 주었고 일본은 박달을 포함, 이전투에 참가한 4백99명을 검거하였다. 사진은 체포되어기는 박달

김일성과의 만남

반일민족통일전선 방침을 수용한 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운동방침에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먼저 조선혁명의 세력배치 계획에서 나타났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은 과거에 조직대상을 빈농, 고농, 노동자에게만 국한시켰던 것을 비판하면서 광범한 반일계층을 통일전선에 결속시킨 것을 결정했다. 곧 악질지주와 노골적인 일제의 앞잡이를 제외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소시민이나 종교인을 막론하고 모두 조직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각 하부조직에서는 반일사상을 지니고 있는 각계각층을 조직에 끌어들임으로써 통일전선 방침을 실천했다.

이처럼 무장투쟁과 연계된 후 박달 등은 새로운 노선에 입각해 활동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 활동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통일전선방침에 입각하여 광범한 대중 속에서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함으로써 대중노선을 확립하였고, 둘째로 비합법 전술에 합법 전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활동을 전개했다. 셋째로 교양활동을 위주로 하던 종전의 방침에서 일보 전진해 일상 생활에서의 대중의 불평불만에 기초한 일상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등 반제반전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처럼 박달 등은 반일통일전선 방침을 수용함으로써 노선상의 일정한 변화를 실현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다시한번 변하게 되었다. 1937년 5월 중순 박달은 박금철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 중일전쟁은 시간문제라는 전제아래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조선민족해방동맹원 기운데 우수한 인자들로 공산당 소조를 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이 먼저 당시 혜산된 조선공산당을 대신해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1937에 입각한 활동을 벌이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동북항일연군 제6사의 보천보진공작전이었다. 국내의 조직역량을 보전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방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직접 진공작전에 동원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보천보 일대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제의 국경수비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활동은 일제가 조선민족 해방동맹의 존재를 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7년 10월을 계기로 박금철, 심창식 등이 검거되자 박달은 검거를 피해 만주와 함경도 일대를 전전했고 따라서 갑산지방의 운동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달은 만주의 무장투쟁세력과 접촉해 향후의 운동방침을 논의하고 1938년 4월부터는 조직의 재건활동을 시작했으나 같은해 9월 일제 주구의 밀고로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한때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갑산 지방의 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지도자

박달은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옥투쟁을 계속했다.

그는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았으나 이미 이때 갖옥에서 입은 상처와 고문으로 몸을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미 일제시기부터 항일무장투쟁노선의 지도하에서 운동하기를 바랬고, 또한 심계로 그러했으므로 북한 정권의 성립에도 김일성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불편한 몸때문에 정치의 일선에 나서는 대신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보고 들은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여 '서광', '조국은 생명보다 귀하다'등의 회상기를 남겼다. 1960년 그가 죽었을때 북한에서는 국장으로 그의 공적을 기렸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를 이렇게 예우하는 것이 반도의 남쪽에서 그를 적대시하거나 금기로 삼는 구실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달은 1930년대 중반 민족해방운동의 대표적 사건의 하나인 해산사건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전선에서 끝끝내 일제에 굴복하지 않은 많지 않은 인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상·무력투쟁통해 '민족속으로'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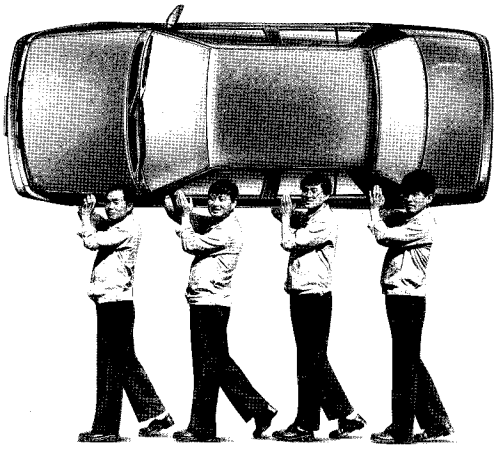
해방후 김일성지지, 지조는 평가받아야

해방운동침체기에 무력으로 맞선 항일투쟁가

글 싣는 순서

1. 총론—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2. 이동휘—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
3. 김사국—비운의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
4. 차금봉—"노동은 사회근본" 선언한 노동운동의 선구자
5. 이재유—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신화
6. 박달—일제와 맞대결한 무장투쟁가
7. 허정숙
8. 이기영

"자동차의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



승용제품개발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우리 자동차도 이젠 군살 좀 빼야죠.
비만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리듯 몸무게 무거운 자동차가
연료도 많이 들거니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승용제품개발 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박봉현 연구원—
이처럼 자동차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더 나아가
수출전선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수출시장에서조차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경우, 수출 판로가 막혀버린다는데…

쇠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보다 충격에 강한
신소재는 없을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마저 줄었다는
자동차 경량화팀 사람들—

무한대의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오늘의 현대맨들이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